

2006.10.10 (화) 배포

문의 / 지역협력팀장 허상무 (750-1450)

김보경 사무관 (750-1454) bonnie@mic.go.kr

러시아 IT 대표단, “놀라워라 IT Korea”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샤다에브(Shadaev) 국가정보화 국장을 포함한 8명의 대표단은 우리나라와의 제2차 정보통신협력위원회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10일 정보통신부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러 정보통신협력위원회에서는 노영규 정보통신협력본부장과 샤다에브 국가정보화 국장의 주제로 광대역통합망(BcN), DMB, 와이브로(WiBro) 및 전자서명, 원격의료 등 양국의 관심현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러시아측은 지난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의 방러(8.21~9.2) 기간 중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와이브로 기술의 우수성 및 한국의 상용화 현황과 향후 양국의 와이브로 협력 추진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협력위원회를 통해 러시아 샤다에브 국장은 한국의 IT 발전에 대해 큰 관심과 함께 놀라움을 표시하고, IT 강국인 한국과의 정보통신 협력관계가 보다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노영규 협력 본부장 역시 이번 위원회가 한·러 IT 협력의 내실화에 본격적 계기가 될 것이며, 과학기술 강국인 러시아는 한국에게 중요한 IT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러시아 대표단은 한·러 정보통신협력위원회 참석에 이어 10일 오후

및 11일 오전에 삼성전자와 KT를 각각 방문하여 와이브로 서비스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그 사업 비전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삼성과 KT 방문 및 양사의 전문가 미팅을 통해 향후 우리 와이브로 기술의 러시아 시장 진출 가능성이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이번 러시아 IT대표단의 방한은 양국 IT협력관계를 내실화하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노준형 장관의 방러 계기에 거론되기 시작한 우리 와이브로의 러시아 진출에 호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